

# 2020 행정사무감사 일일브리핑

2020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일브리핑

## 1. 상임위원회 전체평가

### 1) 행정자치위원회

\* 피감기관 : 자치분권국

\* 위원장 : 홍종원, 위원 : 김종천, 문성원, 민태권, 우승호

- 시청 주차장 문제, 새마을장학금 형평성, 비전문업체와의 방역물품 수의 계약 등 법령과 타시도 사례를 기초로 대안을 제시하는 날카로운 모습이 있었다.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가 받은 보조금에 대한 관리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은 아쉽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관심은 고무적이거나,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그치거나, 한 쪽의 주장을 전체인 것처럼 전달만 하는 모습은 개선해야 한다. 자치구와의 연계, 참여도 확대 등 주민참여예산제 개선을 위한 제안이 있었으나 일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식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질의는 개선해야 한다.

### 2) 복지환경위원회

\* 피감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청년가족국

\* 위원장 : 손희역, 위원 : 박혜련, 이종호, 윤용대, 채계순

- 감사 자료를 사전에 준비 하지 않고 회의 시 무의미한 질의들이 많았다. 자료를 준비 해도 질의에 핵심이 없어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전에 질의했던 질의를 다시 반복해서 다른 의원이 똑같이 질의 하는 형태가 반복되었다. 손희역 위원장은 회의 전 각 의원들의 질의 배분문제에 신경 써야 한다. 자료 활용은 많았으나 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하고 날카롭게 지적하지 못했다. 하나마나한 질의들이었다.

### 3) 산업건설위원회

\* 피감기관 : 교통건설국

\* 위원장 : 김찬술, 위원 : 남진근, 박수빈, 오광영, 이광복, 윤종명)

- 전반적으로 사진, 현장 조사, 자료, 관련법 등 사전 준비를 잘했고, 관련 업무와 필요한 질문을 잘 한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중앙 분리대에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안전보다는 경제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었다. 행정부의 경우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감사지적에 대해 잘 이해했다. 다만 정확한 사실이나 자료가 아닌 돌려대기식 추정을 통해 답변하는 경우가 있어서 종종 있었던 것은 아쉬웠다.

#### **4) 교육위원회**

##### **\* 행정사무감사 결과자료 검토**

## 2. 상임위원회 일일브리핑

### 1) 행정자치위원회

\* 시행 : 2020년 11월 11일(수) 10:00 ~ 16:50

#### (1)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

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피감기관	자치분권국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홍종원, 위원 : 문성원, 김종천, 민태권, 우승호)

#### (2) 행정자치위원회 모니터링 결과

##### \* 행정자치위원회\_자치분권국 주요 안건

##### 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개선

- 주민참여예산 투표과정에 사이트별 중복 투표 문제 지적.
- 연령별, 지역별 참여편차 해결방안 모색 주문.
- 자치구별 주민참여예산제 선정결과 편차에 대한 문제제기.

##### ② 주민자치회 개선방향

- 위원추첨제와 선발제의 문제점 지적
- 1기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자치지원관제도 유지 문제 확인
-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주문.
-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예산 확충 요구.

##### ③ 수의계약 현황

- 코로나 19로 긴급상황이라도 행사, 공연업체에서 방역물품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 일부 기관에 쏠린 용역의 다변화 방안 요구.

##### ④ 시금고 선정 방법

- 시금고 선정 평가항목에 기후위기대응 등 시정방향과 맞는 경영 항목 추가 요청.

##### ⑤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및 보조금 관리

- 자격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비영리단체 말소 등 관리 요구
- 유사사업으로 보조금을 받는 문제 지적.
- 같은 사업으로 3년 이상 지원받는 것을 개선하고 다양한 단체에 대한 지원 주문.

#### ⑥ 시청사 주차난 해결

- 코로나 19로 5부제 미시행으로 주차난 가중.
-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경차, 친환경 차량 주차면수 확대 요구.
- 대중교통 인센티브 등 공직자가 대중교통을 활용할 방안 제시.

#### ⑦ 새마을 장학금 형평성 문제 지적

- 과거와 다르게 봉사단체와 공익단체가 늘어났음에도 특정 단체회원 자녀에 장학금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 다른 봉사단체도 혜택을 받거나 조례 폐지에 대한 고민 필요.

#### ⑧ 전범기업 물품 구입 제한

- 공용물품 구입시 전범기업 생산물품을 제한하는 방안 요구.

### (3) 기타

#### (4) 상임위원회 개인 평가

- 김종천 : 준비가 없었다. 자료조사나 사례 없이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높여야 한다, 고액체납자를 줄여야 한다는 당위적인 주장에 그쳤다.

- 우승호 : 다양한 분야의 질의를 하는 와중에 의미있는 질의가 충분했다. 비전문업체 수의계약, 새마을장학금의 형평성 문제, 시청 주차장 개선방향 등 자료준비와 대안제시가 빛났다.

- 문성원 :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관심과 개선에 대한 요구는 의미 있었다. 다만 운영방식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부분은 아쉽다.

- 민태권 : 비영리민간단체 공모사업과 관련해 유사사업으로 지원받는 문제와 동일사업 3년 제한, 지원 다양화 등 의미있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비영리

민간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공모사업에 대한 관리를 동일시하는 부분은 아쉽다. 공용물품 구입시 전범기업 물품 구입 제한은 의미있었다.

## 5.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평가

시청 주차장 문제, 새마을장학금 형평성, 비전문업체와의 방역물품 수의계약 등 법령과 타시도 사례를 기초로 대안을 제시하는 날카로운 모습이 있었다.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가 받은 보조금에 대한 관리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은 아쉽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관심은 고무적이나,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그치거나, 한 쪽의 주장을 전체인 것처럼 전달만 하는 모습은 개선해야 한다. 자치구와의 연계, 참여도 확대 등 주민참여예산제 개선을 위한 제안이 있었으나 일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식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질의는 개선해야 한다.

### 2) 복지환경위원회

시행 : 2020년 11월 11일(수) 10:00 ~ 20:00

#### (1)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

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피감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청년가족국

위원장 : 손희역, 위원 : 박혜련, 이종호, 윤용대, 채계순)

#### (2) 복지환경위원회 모니터링 결과

- \* 복지환경위원회\_보건환경연구원, 청년가족국 주요 안건
- \* 복지환경위원회\_보건환경연구원, 청년가족국 주요 안건

##### ① 민간위탁 선정 관련 질의

- 청년가족국에서 위탁시행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적합한 조례와 근거가 있는지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한 개선 요청
- 조례나 규칙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 공개모집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할 것을 요구

- 위탁 기간이 2년에서 5년씩 하고 있는데 고용불안과 행정낭비 등으로 인해 위탁 기간 연장을 요청

## ② 청년정책 변화에 대한 질의 역할

- 청년기본조례에 대해서 대전시가 선도로 시작했다고 생각하지만 평가를 해보면 특별히 떠오르는 정책이 없는 것을 지적과 이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요청
- 각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는데 실과 국으로 흩어져 총괄하기 어려움 작년부터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특별한 개선 점이 보이지 않음을 지적
-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전문 인력도 필요하지만 행정 안에서도 유연하게 대응 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
-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
- 경제적인 자립과 지원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마을 안에서도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연계의 끈이 있으면 좋겠다고 발언

## ③ 대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 질의

- 센터 운영 시간과 위기 청소년이 활동하는 시간이 안맞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 요청
- 야간에 위기청소년 구조에 대해 전화상담 뿐만 아니라 경찰과의 동반을 통해서 긴급구조가 필요하다고 발언

## ④ 청년몰 관련 질의

- 청년몰의 줄폐업에 대해서 입지가 비었다고 해서 정확한 조사 없이 무작정 들어감이 원인이라고 지적함
- 청년들의 제대로 된 트레이닝과 좋은 입지에 지원하는 것이 적절 할 것 같다고 지적

## (3) 기타

- 코로나19 진단시약과 키트 비축의 건 질의
- 보건환경연구원 특수 가스 선정 업체 특혜 의혹의 건
- 청년취업희망카드 부정수급의 건
- 청년내일재단 변경 질의
- 아동학대 사전 대응 대비 질의

#### (4) 상임위원회 개인 평가

- 박혜련 : 전체적으로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기 보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만 치중 된 점은 아쉬웠다. 위탁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장기간 위탁업체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한 점은 좋았으나 장기간 위탁이 부적절하다라고 접근 하는 것은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이다.

- 이종호 : 질의에 핵심이 없다. 어린이 공원의 경우 쓰레기, 주차문제를 지적했는데, 이는 계속 해서 나오는 문제이다.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행정간막이로 해결되지 못한 부분을 행정 내 소통이 안 되는 것을 지적하거나 해야 하는데 단순히 당부하는 해결 요청은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 윤용대 : 질의에 핵심이 없다. 사전에 자료조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행 해야 한다. 사업의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과정, 결과에서 나온 문제들을 찾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변화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초등학교 생존수영 강습시간 확대는 단순 당부사항에 그친다.

- 채계순 : 청년정책에 변화와 컨트롤 타워에 대한 이야기는 적절한 지적이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적해왔던 문제였던 만큼 지금까지 해결 되지 못한 부분은 같이 책임을 지고 대안을 만들고 제시해야 한다. 몇 몇 문제 접근은 좋았으나, 대부분의 질의가 당부성으로 그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 (5) 복지환경위원회 전체 평가

감사 자료를 사전에 준비 하지 않고 회의 시 무의미한 질의들이 많았다. 자료를 준비 해도 질의에 핵심이 없어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전에 질의했던 질의를 다시 반복해서 다른 의원이 똑같이 질의 하는 형태가 반복되었다. 손희역 위원장은 회의 전 각 의원들의 질의 배분 문제에 신경 써야 한다. 자료 활용은 많았으나 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하고 날카롭게 지적하지 못했다. 하나하나한 질의들이었다.

#### 3) 산업건설위원회

\* 시행 : 2020년 11월 11일(수) 10:00 ~ 16:50

## (1)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

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피감기관	교통건설국

■ 위원장 : 김찬술, 위원 : 남진근, 박수빈, 오광영, 이광복, 윤종명

## (2) 산업건설위원회 모니터링 결과

### \* 산업건설위원회\_교통건설국 주요 안건

#### ①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질의

-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버스 보조금을 받는 회사들의 당기 순이익이 높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 + 회사 내부의 경영 상태 때문으로 파악한다고 답함. 표준 월가로 산정해 재정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특혜는 없다고 답함. 재정지원금은 운송수익금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고, 영업외수익과는 관계 없음. 영업외 수익은 회사 내 주식판매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 됨.
- 운송종사자 채용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므로 대전시에서 채용 인재를 만들고 그 안에서 버스 회사들이 운전종사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함.
- + 채용 문제는 버스 회사 고유 권한으로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회사와 조율해서 절충점을 찾도록 합의를 하기로 함
- 코로나로 인한 승객 감소로 버스 회사 재정 지원금이 많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질의함.
- + 타 지역 사례, 지역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버스 요금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함.

#### ② 신일동 일반물류터미널에 대한 질의

- 신일동 일반 물류터미널 허가지역에서 불법 폐기물 매립, 무단 산림 채취, 도로 점용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등의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점에 대해 지적
- + 상세하게 검토하여 불법사항에 대해선 고발 조치하겠다고 답함. 대덕구와 환경국과 협의하여 조치를 취하겠다고 함. 사업 확장 인허가에 대해선 정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고, 답변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답함.



### ③ 타슈운영 및 GPS를 통한 공유자전거 방식 도입에 대한 질의

- 타슈 이용객 설문조사를 통해 기존 키오스크 방식의 불편사항이 많은 것을 지적함. 시민들이 편리한 GPS를 통한 공유자전거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정책을 제안함
- + 기존 키오스크 거치대와 GPS 공유자전거 방식을 병행해서 도입할 계획에 있다고 답함. 기존 키오스크 방식이 유지보수 비용이 많아 GPS 공유자전거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함.

### (3) 기타

- 버스정류장 포트홀 해결에 대한 질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설치에 관한 질의
- 수소/전기 버스 도입에 대한 질의
- 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질의
- 주차알림서비스에 대한 질의
- 타슈 보급 및 전기자전거 보급에 관한 질의
- 임산부 바우처 택시 무료화에 대한 질의
- 도로점용공사 시민 소통 대책에 대한 질의
- 타슈 이용 및 공유 시스템(도어투도어 방식)에 대한 질의
- 유성복합환승센터 건설에 관한 질의
- 도안동로 배수성아스콘 시공에 관한 질의

### (4) 상임위원회 개인 평가

- 박수빈 : 주민 제보, 타 지역 자료, 사진자료를 잘 활용했으나 근거 없는 사실(기후위기, 자연재해로 중앙분리대가 많이 손상된다고 했던 이야기)은 확인이 필요해 보임. 상권을 위해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등 안전보다 경제를 우선시 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았음.

- 이광복 : 중요한 질의를 했고, 행정부의 추측성 답변에 대해 지적하고, 자료 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는 모습이 좋았음.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를 미리 요청하거나 조사해와서 질의를 진행하지 못한점은 아쉬웠음.

- 오광영 : 타지역 사례, 자료, 시민 설문조사, 회의록 등 사전 준비가 좋았

고, 주요안건에 대해 반복해서 중요성을 문제제기 한 것은 좋았음. 다만 실질적인 질의가 보이지 않은 것은 아쉬웠음.

- 남진근 : 관련 법률이나 조례를 제시하는 모습은 좋았음. 같은 질문 반복을 하는 것은 좋지 않았고, 정책적 질의보다 단순한 건의성 질의는 좋아보이지 않았음.

- 윤종명 : 행정부에서 원론적인 답변(열심히 노력하겠다, 고민해보겠다)을 했음에도 추가 질의 없이 넘어갔으며, 자료 제시 없이 개인적인 경험을 근거로 드는 것(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줄이다가 사고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자료가 없음)이 아쉬웠음. PPT 자료, 현장 사진, 타 지역 사례 등 감사에 대한 사전 준비는 좋았고, 대전 시민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정류장 내 포트홀 방지를 위한 포장 등 시민의 입장에서 질의를 한 점은 좋았음.

#### **(5)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평가**

전반적으로 사진, 현장 조사, 자료, 관련법 등 사전 준비를 잘했고, 관련업무와 필요한 질문을 잘 한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중앙분리대에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안전보다는 경제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었다. 행정부의 경우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감사지적에 대해 잘 이해했다. 다만 정확한 사실이나 자료가 아닌 둘러대기식 추정을 통해 답변하는 경우가 있어서 종종 있었던 것은 아쉬웠다.

#### **4) 교육위원회**

##### **\*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료 검토**